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反動에 逆轉하라는 西歐의 形勢
—四國協定이 一活路—

一

昨年一月中에 英國에 맥도날드氏를首班으로한 勞働黨內閣이 出現하고 그뒤를 이어 佛蘭西에서도 또한 左黨系의首領인 에리오氏內閣이 出現된結果 依然히 歐洲政界에는 一條의曙光이 照來하게되엿다 더욱히 英佛間에 從來의모든感情關係가 一掃되고 親熱가恢復되야 倫敦會議의 開催를보게되야 有名한 또ㅡ쓰案을作成하야 多年間 歐洲政界의 最大暗礁가되야잇든 賠償金問題解決의 端緒가 잡힌것은 周知의 事實이어니와 더욱히 昨年九月中에 제네바平和議定書가 實現되것은 英佛兩國政府의 進步的政策의 結晶이라할것이다

二

그런데 또ㅡ쓰案의實施는 獨逸政府에게는 적지안은安心을 與하게되엿다 그러나 또ㅡ쓰案의實施에 對하야 疑懼의念을 품게된것은 佛國國權派이엇다 웨그러냐하면 또ㅡ쓰案의 實施로말미아마 獨逸이 復興하게되는同時에 自國의安全保障問題가 完全히 解決되기前에는 獨逸의復讐的侵略이 잇슬것을 疑懼하는外닭이엇다 그리하야 國權黨의 疑懼에 對하야 엇더한 滿足을 與하는手段으로서 제네바平和議定書를 制定한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國權派에게 絕對의 滿足을 주지못하고 다만 一時政界의 安全을 圖하는데 그치고 말엇다

三

이와가티 英佛關係가 左傾派의 非侵略的政策下에서 서로 接近되야 歐洲의平和를 力圖하는 同時에 獨佛의關係도 非常히 親善的傾向을 가지게된것이 事實이엇다 이러한 途程에 잇서 英國의 政變은 實로 歐洲政界의 一大波紋이엇다 英國에 勞働黨內閣이 瓦解되고 保守黨의 天下가되야 쌀드윈內閣의 保守政策은 第一着으로 제네바議定書의 批准을 拒絕하야 佛國으로하야금 唐慌失望케하엿다 佛國은 제네바平和議定書로써 獨逸을 復活케하다는 또ㅡ쓰案의 代價를삼엇든바인데 英國이 議定書에 反對의 態度를 示하게되면 自國의 安全保障問題는 一虛名에 不過하게되는外닭에 急遽히 이에 가름할 保障條約의 成立에 苦心치아니할수업게되엿다 그리하야 英、佛、白三國安全保障協定을 締結하는同時에 [illegible] 期하게되엿다

四

에리오氏로말하면 [illegible]上으로보아 安全保障問題에 그럿케 英國民의 多大數가 獨逸에對한 敵愾心이 자못 猛烈하야 이保障問題로 獨逸의侵略을 根本的으로 防止하는 問題에 至하야 必死的으로 企待하는터임으로 輕輕히 自家의 主義대로 處斷을한다하드래도 반드시 政變을 유치치 안이하는 自家의 主張도 同時에 泳泡에 도라가고 말터임으로 安全保障問題만은 頑强히 固執치아니키 不能하게된故로 제네바議定書에 依한保障을 英國에게 要求하는 同時에 一面으로는 三國協定을 主唱하게되것이다 그러나 英國의 態度가 確定된後에는 不得已 英外相쳄바렌氏와 巴里에서 私的會見으로써 意思를 交換함에 보앗스나 何等의 結果가 업시 그대로 平和議定書에 對한 絕望을 품고 最後의 對策에 苦心치아니할수 업섯다

五

이와가티 英佛이 安全保障問題를 中心으로하고 感情이 疎隔되는 同時에 佛首相 에리오氏는 非常한 窮境에 立하게되엿다

그리하야 多少緩和되얏든 獨佛의 關係도 다시 休戰以後에 에리오內閣出現時와 如한 險惡한 狀態에 逆轉하게되엿다 그리고 一面으로는 反動勢力의 擡頭인 伊太利가 英國에 盛히 秋波를 送하야 同盟案外지를 提議하고 잇다

이에 歐洲의 政界는 다시 反動派의 勢力이 風靡하는 暗黑한 局面이 到來될것을 預感치아는 수업게되엿다 오즉 最後의 活路는 獨逸이 提唱한 四國共同保障協約案에 對한 英國의 努力如何와 佛國의 態度如何에 集中되고 말엇다

今后歐洲의 政界는 자못 注目할만한 時期임을 高調하여둔다

『체코』外相 佛首相과 會見
獨墺合倂策을 沮止

(나우엔無電二十五日發) 倫敦特報에 依하면 체코外相『베네쓰』氏는 佛首相『에리오』氏와 長時間會見後、獨逸의 安全保證提案의 一部를 承服하기로 되엿다 그런데 同氏는 將來에 起할수잇는 獨、墺、合倂을 何時이던지 沮止할수잇는 協定을 欲求하는中이더라

獨政府가 閣議로 英外相演說을 審議

(伯林二十五日發) 信憑할方面의 말하는바에 依하면 獨逸政府는 英國外相『쳄바렌』氏의 演說로써 保障條約을 促進함에 큰 貢獻이 되다 思惟하는中이라하며 又內閣은 二十八日의 閣議로써『쳄바렌』氏의 演說에 對하야 審議할터이더라

軍縮事業完成方法을 國務卿에게 研究要求

(『쏠로』無電二十五日發) 米國大統領『쿨릿지』氏는 第一回海軍縮少會議의 事業을 完成할目的으로 國務卿『켈록』氏에게 對하야 그方法研究를 要求하엿더라

『발』氏來問을理由로 反對示威가 盛行

(『쏠로』無電二十五日發) 『제르사렘』師範學校生徒는 『발포아』氏의 訪問을 理由로삼아 同盟休校를 함으로 政府는 할수업시 一時學校를 閉鎖하엿다 又回敎徒、基督敎徒로 店舖를 閉鎖하고 覩務를 拒絕하야『발포아』氏에 對한 反對示威를 宣言하엿더라

東京駐在 勞農通商代表

(莫斯科二十五日發) 勞農露國外國貿易部參事會員『칸손』氏는 今回東京駐在通商代表로 任命되엿더라

英外相演說과 佛紙의論調

(巴里二十五日發) 佛國新聞은 英國外相『쳄바렌』氏의 下院演說을 好感으로써 迎하고잇다 但一部의 新聞은 獨逸의 誠意를 疑問이라하야 來二十八日에 行할 獨逸大統領選擧의 結果를 본뒤에外지는 警戒할것을 勸告하는中이며 『인트란시잔트』紙는 特히 獨逸과 東部國境問題에 關한 不明의 點을 明確히 할 必要를 力說한다더라

西班牙獨裁官 戰況視察

(나우엔無電二十五日發) 『마드릿드』特報에 依하면 西班牙獨裁官『프리모·데리베라』將軍은 『모롯코』의『라라슈』『미리라』의 戰況을 視察하고 再次『모롯코』에 歸還하엿다하며 『탄지일』特報에 依하면 『리프』族은 『후르고』將軍과 非公式交涉을 行하엿는데 雙方이 共히 이미 戰爭에 厭症이 낫슴으로 不遠에 協定이 될는지도 不知이라더라

三派總務會

(東京電) 與黨三派院內外總務會에서 左의 協議를 하엿다 普選問題는 三派提携의 骨子이라 吾人은 貴族院의 態度如何에 不拘하고 總末外지 協調의 精神을 確守하야 最後의 目的을 貫徹함에 努力함이 可함

憲政議員總會

(東京二十六日發) 憲政會에서는 二十六日午後一時二十分 院內에 議員總會를 開하고 安達總務로부터 三派幹部聯合會의 經過를 報告하고 對貴族院에 關하야 如何한 政局의 變化가 來케하여도 三派協調는 徹頭徹尾하지안켓다 決議하야 天下에 聲明하기로되엇다 逃하야 滿場一致로 此를 承認하고 一時四十分에 散會하엿더라

政友總務會

(東京電) 政友會는 二十六日正午 幹事長室에 總務會를 開하고 普選修正案의 兩院協議會에서는 根本精神은 決斷코 讓步할수업다 相議하고 零時半에 散會하엿더라

政友代議士會

(東京廿六日發) 政友代議士會는 午後一時院內控室에 開會하고 岡崎氏로부터 三派協議의 顚末을 報告하고 滿場一致로 此를 承認하고 午後一時二十分에 散會하엿더라

兩院協議會도 波瀾未免?

(東京電) 衆議院은 形式上午後一時四十五分頃에 開會하엿든바 貴族院에서 普選案이 廻着할때外지 待키爲하야 바로 休憩하엿다 今日은 本黨側이 貴院의 修正에 同意하고 兩院協議會에 反對할터이므로 相當히 波瀾이 잇스리라더라

『와하비』賊 三百名戰死

(카이로二十五日發) 『아라비아』의 『지에나』附近에서 激烈한 逆襲을 受하야 三百名의 『와하비』賊이 戰死하엿다 報道하는데 처음 報道는 『와하비』賊이 前『아라비아』皇帝『핫센』의 住居하는 『아카바』를 襲擊하는中이라고 傳하엿더라

航空路設定에 獨逸代表到着

(巴里二十五日發) 會議에서 獨逸上空航空路設定에 關한 基本協定의 本交涉을 할 使命을 帶한 獨逸代表一行은 本日到着하엿는데 佛國側에서는 若獨逸이 聯合國에 對하야 獨逸의 上空을 飛行할 權利를 許하게되면 獨逸에 更히 大型의 商業飛行機製造를 許함에 贊成할것으로 解釋하더라

高田早苗氏가 新修正案提出

(東京電) 貴族院同成會高田早苗氏의 發議로 同成會及、研究茶話、無所屬、有志의 贊成을 得하야 左의 普選案、修正案이 提出되엿다 衆議院議員選擧法改正法律案中第二章第六條의 貧困으로 生活을 爲하야 公私의 救恤을 受하는者로 修正함

담배로 檢擧된 사람이 二百餘
昨年中 淸州에서

昨年中淸州專賣局出張所管內에서 專賣令違反으로 檢擧한 人數는 二百七十八人인바 通告處分을 履行한것이 八十一人이오 不履行又는其他에 依하야 告發한것이 四十二人으로 다만一人만 免訴되고 其外는 全部有罪로되얏다하며 其外百五十五人은 通告期間中或은 告發手續을 하얏다는데 同年間의 罰金이 二千七百五十一圓 沒收葉煙草가 八十七貫七百七十匁 追徵金이 百三十二圓八十一錢이라더라(淸州)

淸州葉煙草生產高

淸州專賣局淸州出張所에서 昨年中에 生產한 葉煙草收納狀況은 合計三十二萬八百四十九貫六百匁 價額三十二萬二千二百四十五圓二十九錢인바 作付反別一千百五町五反步中 一反步生產額이 平均二十六貫九百四十匁요 價額이 二十八圓八十錢이라는데 主要產地는 淸州、槐山、報恩三郡이라더라(淸州)

理髮助手親睦會

群山에는 數十處의 理髮舘이 잇슴을 따라 三十餘名의 理髮助手가 잇스나 아즉 親睦機關이 업슴을 大端遺憾으로 역이든바 今般에 崔汝鋪、秋永鍋、吳正植外諸君의 發起로 지난 十七日에 開福洞尙等理髮舘內에서 群山理髮助手親睦會發起總會를 開催하엿다는데 發起委員은 아래와갓고 創立總會는 오는 四月三日이라더라

崔汝鋪、秋永鍋、吳正植、朴重祚、文根洙(群山)

彥陽市場 百一稅撤廢
四月一日부터

慶南彥陽市場에서는 從來賣買額의 百一稅를 밧든것을 來四月一日부터는 全部撤廢한다는데 그內容은 이즉 慶南道評議員에 이오 百一稅問題를 [illegible] 全部撤廢하기로 決議된바 [illegible] 市場에서는 [illegible] 一般은 매우 깃버한다더라(彥陽)

衡平青年總會
青年團體組織을 計劃

慶山衡平青年會에서는 去二十四 [illegible]

綾州公普 學級增加問題
三個事項決議

全南綾州甲子青年會에서는 綾州公立普通學校學級增加問題로 學父兄會를 開催한다함은 既報한바어니와 去二十一日午後二時에 普校室內에서 會를 開催하고 曹秉黨氏司會로 左와如히 決議하얏다더라

一、現狀은 六級이 一級임으로 三學級을 複式으로 敎授하야 敎育이 不完全하니 今年度에는 반드시 女一級을 增加하도록 郡當局에 交涉할일

一、男生은 百二十餘의 多數를 一級으로 敎授함은 안이라 大學年 [illegible]

黃澗青年創立

忠北永同郡黃澗面有志青年十餘名의 發起로 去二十四日午後一時에 黃澗舊郡廳舍家에서 黃澗青年會創立總會를 開催하얏는데 多數한 會員이 定刻前부터 雲集하야 車敬坤氏司會로 同氏의 熱烈한 趣旨說明과 意味가 深遠한 洪順甲氏의 來賓祝辭가 잇슨後에 重要事項을 決議하고 同六時에 閉會하얏는바 被選된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會長 車敬坤 副會長 韓聖東 總務 崔判興 庶務 林 小泰 金義泰 財務 朴基洪 安洙今 敎養 朴良根 體育 金明煥 白雲浩 演藝 韓成 金智泰(永同)

畜產技術員協議會

今回地方費의 整理에 依하야 郡畜產技術員三十名을 十六名으로 減少하고 兼務者로서 進行케한 結果 該郡兼務의 技術員은 二十九日京畿道會議室에 召集하야 執務上의 協議를 遂할터이라더라

河東青年會
新事業을決定

慶南河東青年會에서는 去二十三日午後九時에 解良洞夜學校內에서 會員三十餘名이 會集하야 左記事項을 討議한後 同十二時에 閉會하얏다더라

討議事項

一、科學思想部를 設置할일

一、文藝思想普及을 圖할일

一、幼稚園의 維持費를 補助할 目的으로 四月初부터 素人劇을 興行하야 收入된 金額은 幼稚園에 補助할일(河東)

移道紀念으로 自働車賃減下

慶南密陽自働車株式會社에서는 慶南道廳移轉紀念으로 左記와 如히 乘車賃金을 割引하는 同時에 時間외지 改正하얏다더라

割引賃金表

草溪에서 永田間 五十錢、昌寧間 二圓、靈山間 二圓九十錢、密陽間 四圓五十錢、密陽驛 四圓七十錢

改正된 時間表

永田行 午前九時、午後二時 密陽行 午前十一時、昌寧行 午後三時三十分(草溪)

經濟契를創立
軍威郡東山洞에서

慶北軍威郡缶溪面東山洞에서는 去陰二月十五日에 經濟契를 組織하얏다는데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契長 洪淵九 副契長 崔東圖 理事 洪淵郁、洪日燮 有司 洪淵璟、崔東浩(軍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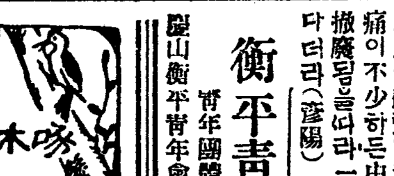
東萊商務會總會

東萊商務會에서는 去二十日上午十二時에 壽安洞公會館內에서 定期總會를 開催하고 任員을 改選한바 會長은 事光洙氏가 被選되얏다더라(東萊)

保護者會總會

慶南河東公立普通學校保護者會臨時總會를 去二十三日午後一時에 同校內에서 會長金翔源氏司會로 開催하고 校長橫田金之助氏의 感想談이 잇슨後에 任員을 左와如히 改選하엿다더라

會長 金翔源 副會長 趙東燦 幹事 橫田金之助、黃鉦鉉、朴晚奭、金洪完、鄭守、鄭駿、許讃、金洪泰、趙東晧、金榮斗、金泰益、金準斗、愼鏞振、陳斗永、金洪柱、金容吉、李鏞衡、余琮鐵、金仲基(河東)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要 住所氏 名明記

三湖公普校長坂 梨熊象君에게

◇曩에 某新聞을 通하야 君이 『파리잡이校長』이라는 名譽롭지못한 일홈을 어덧슴에 대하야 우리는 君의 한失手로알고 人權을 無視한 [illegible] 이라는 哲論에 則하야 君으로하야금 良心의 反省이 잇기를 至오직 促하엿섯다 그러나 君의 其後의 行作을 보면 너무도 怪惡하고 卑陋함으로 不得已 啄木鳥欄을 빌어 一筆을 加치아니치 못하겟다

◇첫재로 파리잡이 校長이라는것부터 말하야보자 所謂 總督府指示인지 道의 方針인지 또는 君의 創作인지는 알수업스나 君의 指示로 三百餘名兒童에게 對하야 全校파리 三百마리式을 요사이 잡게 [illegible]

◇그러나 衛生을 重要視하야 그것을 實行하여 가르치는 君으로서 [illegible] 이로써 頭腦를 따러 傷處까지 내이지 안하엿는가 君아 파리 驅除는 누구를勿論하고 贊同한 다 傳染病豫防으로던지 其他衛生思想으로던지 그어느方面으로보던지 人生生活에 不美한 重大關係를 가진 파리를 驅除하는 것은 勿論莫大한 利益이다

◇其外에도 許多한 君의 非行은 紙面의 許諾지 안음으로 구러여 一一히 摘發하지 아니하나 [illegible]

(三湖讀者生)

衡平青年總會

[illegible] 慶山衡平青年會에서는 去二十四 [illegible]

東萊春期運動會

東萊商務會主催의 春期大運動會는 來四月十二日에 溫泉場大廣場에서 開催된다고(東萊)

南商評議員會
坐地買入決議

鎭南浦商業會議所에서는 지난 十九日午後四時부터 同所樓上에서 臨時評議員會를 開催하고 島越繼所在地四百九十四坪의 現所有者인 陸軍側으로부터 買收할것과 및 東洋拓殖會社로부터 借入할것等을 決議한後 此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變更하는 同時에 前記起債에 關한 申請書를 監督官廳에 提出하기로 可決하얏다 더라(鎭南浦)

日新青年創立
成川文興里에서

成川郡通仙面文興里及玉井里有志青年三十餘名은 時代進化를 따라 우리의 前程을 우리가 開拓하여야 하겟다고 切實히 覺悟하고 去二十一日에 日新青年會를 組織하기로 決議한後 即時로 創立總會를 開催하야 會則通過及任員을 選擧하얏는데 選擧된 任員은 如左하다더라

會長 金際奎 副會長 金昌洙、書記 李文模、趙炳麟、幹事 金載熙、崔錫鳳、鄭昌輝、鄭道潤(成川)

南市學院에 寄附金續至

龍川南市에 잇는 南市學院에서는 그동안 當局의 諒解를 어더 各方面으로 一般이 活動한 結果 다음과 가튼 同情金을 어덧다더라(龍川)

李道彬、黃鵬河 各五十圓 張益裕、金德三 各二十圓 李暾根、來氓、金秉鐵、張柱鳳、金圓 張秉良 三十五圓 安丙權、金張秉周、美鳳瑞、白孝俊 各三十

小作料 三百石을減除
平壤崔氏의特志

平壤府寺洞 [illegible]...

平壤水玉里 六十一番地 崔樂文(六〇)氏는 自己의 所有大同郡南串 [illegible]

崇仁校增築義捐

有志로부터 七千餘圓收集

高陽郡崇仁面은 二萬餘의 住民이 잇슬뿐아니라 京城을 接近한 곳이나 完全한 小學校 하나도 업서 一般이 遺憾으로 생각하든바 距今四年前에 當面長金基宅氏의 發起로 面民有志에게 七千餘圓의 寄附를 엇어 崇仁公立普通學校를 設立하야 現今에는 四百餘名의 兒童을 收容하나 敎室이 狹少하야 더 收容하려하나 할수업슴으로 다시 七千五百圓의 同情金을 바더 不遠에 增築하리라는바 寄附人士의 氏名은 左와如하다더라

李鍾桓 一千圓 [illegible] 金顯均、李忠九、金榮範、韓龍植 各五百圓 崔晚奎、尹錫起、金顯夏、丁奎三、金東鉉 各二百圓 金顯換、金鍾煥、崔鍾禎、金仁壽、李敬瑞、孫義日、柳海昌、聖憲一 六、崔善益、金觀永、裵趾觀 獎勵契、金聖玉、鄭光鉉 各一百圓 無名氏 一千圓(高陽)

韓醫師의 旅善

平北寧邊郡 [illegible] 韓醫師韓愛彥氏는 當地一般無產者들의 病에 걸려 神吟하면서도 費用의 關係로 充分히 治療를 밧지못함을 遺憾히 생각하야 一般貧困患者의 게限하야 無料로 親切히 治療하야 준다더라(寧邊)

[illegible] 小作人 三百餘石을 減除하야 主 [illegible] 是에 地主는 [illegible] 記念碑를 建立하엿다더라(平壤)

우리青年創立
咸南高原郡에

咸南高原郡雲谷面有志青年들이 去二十二日에 當地天興學校講堂內에서 우리青年會를 創立하고 三十餘名이 모히여 여러가지 事項을 左와如히 決議하고 同午後六時三十分에 散會하얏다더라

◇綱 領

一、世界의 知識을 廣求할일

一、義義를 普及할일

一、體育의 發達을 期圖할일

一、慈善事業을 勵行할일

一、地方風俗을 革新할일

一、產業을 振興하고 敎育을 普及할일

◇決議事項

一、普天敎徒를 撲滅할일

一、會員은 반다시 新聞雜誌를 購讀할일

一、郵便遲滯에 對하야 郵便所와 徹底히 交涉한後 如前하면 遞信局에外지 積極的으로 交涉할일

◇任 員

顧問 金鳳燾 孫炳奎 金昌垢 朴才重 金斗滿 會長 金秉濟 修養部長 兼書記 劉載鐸 書記 安命 部長 兼總務 金用九 地方 委員 監事 金仲汝 評議員 金庚 念 金澤鎌(高原)

遮湖青年總會
責任委員制度를 採用

咸南利原郡遮湖港에 잇는 遮湖青年會에서는 客月二十五日이 第七回定期總會期日이든바 海事末畢의 關係로 去二十一日로 延期하야 當日午前十一時에 遮湖公立普通學校講堂內에서 九十餘名의 會員이 모히여 總會를 開한後 會務進行에 不合理한 旣往의 委員制度가 現今事業進行하는 同時에 새로운 責任的委員制度를 採用하기로하엿는데 그 討議事項과 新任員은 如左하다더라

◇討議事項

一、憲章改正의 件

一、會舘建築未完의 件

一、今年度豫算編成의 件

一、任員改選의 件

◇新任員

常務委員 金鼎燮 庶務部責任委員 崔觀鎬 金基煥 財務部責任委員 李協泰 崔慶海 產業部責任委員 李柱楨 張煥植 敎務部責任委員 張一楨 李昌鉉 體育部責任委員 金河連 朴忠國(利原)

咸南家畜副產

咸南道에서 昨年中에 生產한 畜產物은 牛皮 及皮二十三萬八萬六千九百三十三斤 此價格 十七萬四千四百九十一圓 牛骨二十七萬八千九百餘斤 價格 四千七百八十九圓 牛脂 八萬三千六百餘斤 價格 一萬九千四百三十四圓 豚毛 五千四百餘斤 價格 千九百五十四圓 豚脂 二萬六千四百二千三百餘圓 蜂蜜 八萬六百七十斤 價格 六萬二千四十萬三圓 鷄卵 一萬二千六百斤 價格 八千八百九十四圓이라더라(元山)

北青地方團體消息

北青青年會聯合會에서는 四月四日에 定期總會를 召集한다고

北青體育協會에서는 四月三日에 陸上競技大會를 開催한다고

北青青年會聯合會에서는 四月四日後에 雄辯大會를 開催한다고

北青一七會에서는 四月三日에 講演會를 開催한다고(北青)

卒業、進級、入學
때맞난各學校

▲靈岩郡北一始面永保學院은 設立한지 滿三年인 去三月二十一日 上午十一時에 同學院講堂內에서 第一回卒業式을 擧行하게되엿는바 同學院代表崔南鎬氏式辭로 비롯하야 生徒一同의 校歌合唱이 잇슨後卒業證書授與式이 잇고 生徒李基福君의 生徒代表의 答辭가 잇섯스며 卒業生 金在澤氏의 學事報告가 잇서 來賓으로 裵致文曹士元兩氏의 祝辭가 잇섯고 下午一時頃에 閉會하엿는데 卒業生은 五名인바 一名은 光州農業學校에 合格이되엿고 二名은 日本으로 二名은 家事에 從事케된다고(靈岩)

▲珍島郡臨淮面石橋里石橋公立普通學校에서는 三月二十一日 午前十一時에 同學校敎場內에서 第三回卒業式을 擧行하얏는데 正刻前부터 學父兄及來賓이 多數來參하야 同校長 許合唯一氏의 式辭가 잇슨後卒業生四十二名의게 榮光스러운 卒業證書及賞狀을 交付하고 따라 珍島郡守 成楨洙氏 代理로 出席한 同郡書記 郭宇春氏의 祝辭가 잇슨後卒業生側으로서 三年生徐在玉(六)崔立述(一六)四年生朴秉玄(一八)崔升珉(一七)四人의 滋味잇는 答辭가 잇슨後盛大한 茶菓會로서 同午後三時에 閉會하얏는데 今回卒業生은 四十一名이라고(珍島)

▲去二十日下午二時頃에 水原鐘路禮拜堂內에서 水原幼稚園放學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다고(水原)

▲仁川私立博文學校에서는 去二十三日午前十時半에 同校에서 卒業式及進級式을 擧行한바 校長全學俊氏의 開式辭를 비롯하야 校長代理李廷翼氏의 訓辭、卒業生答辭在學生送辭가 잇슨 다음에 本報 仁川支局長 朴昌漢氏의 祝辭가 잇섯고 師恩을 感謝하는 卒業生學友를 惜別하는 在學生들의 悲喜交至하는 唱歌속에서 盛況으로 閉式하얏다는바 今回卒業生은 二十二人 中五人은 優秀한 成績으로 京城淑明女學校에 入學되엿다 明、淑明女學校에 入學되엿다하며 最優等으로 卒業한 金銀製鍍 (三)에게는 總督府로부터 最優等賞을 交付하얏다고(仁川)

▲會寧普興女學校、信興男學校及幼稚院卒業式을 去二十日에 當地耶蘇敎會堂內에서 盛大히 擧行하엿는바 卒業生數는 合二十六名인데 女學校卒業生은 全部高等科에 入學하리라고(會寧)

▲晉州第二普校에서는 二十三午前十一時에 本校講堂內에서 第五回卒業式을 擧行하엿다고(晉州)

▲草溪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二十三日午前十時에 第十二回卒業式을 擧行하엿는데 卒業生數는 十八人이요 優等生은 李晚大、郭太殷、韓伊三人이라고(草溪)

▲陜川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 二十二日午前十一時에 第十二回卒業式을 擧行하얏는데 來賓及學父兄側에서 多數參席하야 一大盛

▲順道女學校 同校에서는 去二十五日午前十時에 第十六回卒業式을 擧行한바 卒業生은 八名中優等生李桂順外 一人이라고(大邱)

▲大邱女子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二十五日午後七時부터 第二回卒業式을 擧行한바 卒業生은 八人이라고

▲寄援學校 同校에서는 去二十五日午前十時에 第十六回卒業式을 擧行한바 卒業生은 十五名中優等生은 金乙龍外 一人이라고(大邱)

▲平北白馬公立普通學校에서는 지난 二十三日午前十一時에 三百餘名學父兄과 百餘名의 來賓이 列席한後 盛況裡에 該校室內에서 第七回卒業式及修業式을 擧行하엿는바 卒業生은 四十三名이며 優等生은 趙顯國、趙德國、朴永實인데 今番上級學校에 入學될 學生數及學校種別은 左記와如하다고

新義州商校 一人 仁川商校 一人 開城商校 二人 新義州高普校 五人 京城第二高普校 二人 京城高普校 二人 正高普校 一人 松都高普校 二人 義州農校 二人(白馬)

▲忠南江景私立萬東學校에서는 去二十三日에 同校舍內에서 男子部의 卒業과 女子部의 進級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다는데 同女子部에서는 今年부터 女敎員一名을 增員하야 六學級으로 昇格하고 左記와 如히 學生募集에 着手하엿다고

◇募集人員 一學年 五十名 各級 補缺生 若干名

◇志願期日 四月十日外지

◇年齡 滿七歲부터(江景)

▲開島局子街普通學校에서는 오는 三月二十四日에 同校內에서 進級式을 擧行한다고(開島)

▲谷城公立普通學校에서는 本月二十三日午前十時三十分에 同校內에서 第十四回卒業式을 擧行하얏는데 三十六名의 卒業生中中等學校의 入學志願者는 左와 如하다고

光州高等普通學校 四名 光州師範學校 九名 京城第二高普校 一名 徽文高普校 一名(谷城)

▲天道女學校 [illegible]

▲寧邊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二十四日午前十時에 第十二回卒業式을 擧行하고 同校長의 [illegible] 祝辭등이 잇섯고 今年卒業生은 男四人女 [illegible]

▲全北扶安 [illegible] 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二十二日에 同校二階上에서 卒業式을 盛大히 擧行한바 卒業生 [illegible] 三十九名中優等生은 男四人女三人이라고(扶安)

現在學生 男子 六〇一人 女子 二五五人

卒業生 男 三人 女 [illegible] 計 七九二人

再修生 男 三人 女 一人

修業生 五五人

▲寧邊私立幼稚園에서는 同日午後四時부터 當地聖經學院內에서 第一回修業兼進級式을 院長代理崔錫一氏司會로 開催한바 各官公署側의 來賓과 學父兄母妹의 多數參席下에 여러가지 淸雅한 音樂 等으로써 滿場의 盛況을 이루어 스며 來賓崔郡守의 祝辭가 잇슨後同五時에 閉式하엿다고(寧邊)

▲寧邊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二十四日午前十時부터 同校第一講堂內에서 第四回普通科(六年制)及第一回高等科(二年制)卒業式을 擧行한바 百花爛發한 듯한 式場에는 學父兄母妹及各官公署來賓이 參席하야 盛況을 呈하고 同午後一時에 閉式하얏다는데 卒業生은 普通科에 男女六十二名 高等科에 男女二十二名中優等生은 普通科에 男女六十二名高等科에

▲成南利原公立普通學校는 設立한지 十數年間에 成績이 良好한바 去三月二十三日에 第十二回卒業式을 擧行하엿다고(利原)

▲朴利柱君 康錦女史 高等科에 車淳健余弼洙君이라고(寧邊)

▲鐵山公立普通學校에서는 二十四日上午十時에 第十四回卒業式을 擧行하엿는데 卒業生은 男子部 [illegible] 今回外지의 卒業生數가 一百七十四人이며 今年에는 女子部卒業生이 [illegible]

▲平北定州郡觀舟面私立永昌學校에서는 지난 二十三日午後二時에 第十七回卒業式을 當地禮拜堂에서 擧行하얏는데 卒業生은 十五名이라고(郭山)

▲慶南固城郡上里面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三月二十三日午前十時에 同校講堂에서 第一回卒業式을 擧行한바 卒業生은 二十五名中優等生은 四十八名이라고(固城)

▲慶南泗川邑內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第十三回卒業式을 同校內에서 擧行한바 今回卒業生은 四十八名이라고(泗川)

▲白川幼稚園에서는 本月二十日午前十時부터 當地禮拜堂에서 第二回卒業式을 擧行하엿는데 卒業生은 [illegible]

▲元山府第一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二十五日午後一時에 第十六回卒業式을 擧行하엿는데 卒業兒童은 男生徒三十七名이오 女生徒十五名合計五十二名이며 其中優等生은 男生徒三名女生徒三名이라고(元山)

▲蔚山 [illegible]

▲慶南東萊公立普通學校에서는 去二十三日午前十時부터 同校講堂에서 第一回卒業式을 擧行하엿는데 卒業生은 二十五名中優等生은 [illegible]

▲鎭南浦私立三崇幼稚園 第七回卒業式을 去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龍井里 同幼稚園에서 盛大히 擧行하엿는데 卒業生은 [illegible] 甲班 [illegible] 人 乙班 十人 丙班 二人 모다 二十八人이라고(鎭南浦)

▲鎭南浦新興里監理敎會堂에서 去二十三日下午八時부터 女子夜學部의 第一回講習證書授與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다고(鎭南浦)

▲鎭南浦私立得信學校 第十二回卒業生은 豫定과 가티 지난 二十五日午前十時부터 [illegible] 盛大히 擧行하엿는데 卒業生은 男子部九名 女子部六名 모다 十五名인바 學會上級學校에 就學한다고(鎭南浦)

一人▲濃業學校五人▲商工學校 二人▲會社銀行七人▲日本實業學校 二人▲海員養成所二人(鎭南浦)

如하다고

▲高陽 [illegible] 崔永濬氏의 祝辭가 잇슨後卒業證書授與式을 擧行하엿는데 卒業生은 醫補習學校에 十五名普通學校 男子部二十四名 女子部六名인바 優等生은 醫學校에 李守奉、普通學校 男子部 金萬文、金添吉、女子部 韓仁伊이라고(高陽)

期米

仁川期米 第二報
前場小落
三月廿六日

前場阪地 三十九圓〇一錢인 小弛의 止價를 伴하고 三十五圓九十九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後場에 入하야 阪地初付 三十八圓九十三錢인 入丁反落을 擔하고 二十五圓八十七錢에 場을 納한後 阪地後報 八十二三錢의 強合을 不拘하고 九十九錢外지 奔騰하더니 阪地五節 九十錢으로 結局八十四錢에 小散히 場을 止한 情報를 接하야 八十四錢에 場을 止하니 高低의 差가 十五丁이며 阪仁의 鞘는 三百丁이더라

大阪場況
二十六日後場

今後場 阪地場況은 地場及兵庫筋의 賣押으로 三十八圓九十三錢에 場을 納한後 更히 九十一錢으로 下押할새 此際에 地場實玉筋及 下落客筋의 賣物이 現出하야 九十錢으로 又復低下한後 買物이 稀薄하야 結局八十四錢의 最低로 場을 止

◇各地止價◇

	二十六日後止	昨比
大阪	三八、八四	一二低
東京	四〇、三六	一四低
兵庫	三八、四三	七低
下關	三八、八〇	二〇低
桑名	三九、一一	八高
名古屋夕後	三八、九一	一五低
金澤	三八、九四	二〇低
熊本	三八、八〇	一四低
仁川	三五、八四	二九低

◇阪仁氣配◇

大阪 三十八圓八十二三錢

仁川 三十五圓八十三四錢

◇各限俵合◇
二十六日後場

賣方 當限(計三、三〇〇石) ㉑二、二〇〇石 ㉗一、一〇〇石

買方 當限(計三、三〇〇石) ㉑二、二〇〇石 ㊲一、一〇〇石

中限(計七、九〇〇石) ㉗七〇〇石 ⑰一、〇〇〇石 ㊱二、〇〇〇石 ⑬九〇〇石 ㉑一、〇〇〇石 ⑬二、〇〇〇石 ⑨三、〇〇〇石 ㊲一、〇〇〇石

先限(計四五、三〇〇石) ⑰三、九〇〇石 ㊵三、五〇〇石 ㊲五〇〇石 〇一、〇〇〇石 ㊳一、七〇〇石 ㊷八、五〇〇石 ㉒二、七〇〇石 ㉔三、五〇〇石 ⑩二、二〇〇石 ㉟一、三〇〇石 ㊶三、三〇〇石 ㊿一、一〇〇石 ㉝一、六〇〇石

拳銃으로良民脅迫
처녀를첩으로달라다가 듯지안는다고위협하여

성천 경찰서○○경관주재소(成川警察署○○警官駐在所)에 근무하는백모(白某)란순사는지난 음십오일오후십이시에그곳사는 김치원의사위되는 사람에게 권총(拳銃)으로협박하고그의처를 **구타한일** 이뚝로되엿다 이제 그원인을 됴사하건데 성천군 삼덕면기창(成川郡三德面岐倉)김치원(金致元)의셋재딸 김은실(金銀實)(二六)은작년에평양 긔업강습소에 입학하여 잇든중 평양○○에 잇는리모라는 청년과호약까지하고 잇다가 자긔부친의 병으로인하야 귀가하엿섯는데 전긔 백순사는 그처녀에게 욕심이 생기어본처가 잇슴에도 불구하고자긔첩(妾)을삼으라는 야심으로 그혼약을 해제케한다 꾀하야 자긔와혼인을 강청하엿섯다 그러나 이를안 **김은실의** 형은커녀가남의첩으로 갈수업다하야 강경히 반대하엿섯다 그럼으로 백순사는은실의 형으로인하야 자긔의 욕망이 성취되지아니함으로 그녀자를 들려다가 결국은 대로상에서 련타하엿스나 여러사람의 말림에 못익이어 그만둔일이 잇스며 그후에박순사는 무슨생각이잇섯든지 경관용드니식 권총을가지고 김은실의집으로 차저와서 권총으로협박하며 자긔의욕심을 채우려하엿다 이에 이팡경을본 멋멋청년들은 사래가용이치 아니함으로 곳권총을 쌔아서 주재소 림시주임촌상순사(村上巡査)에게전하엿다더라

調査하겟다는
본서의소산경부담

이에대하야 성천 경찰서장을방문한즉 서장은평양으로가고 업슴으로소산경부보(小山警部補)를방문하야 질문한즉「우리는아즉자세히 몰으나 곳됴사하야처치하겟습니다 서장이 방금려행중임으로 도라오면 곳의론하겟습니다」하더라(성천)

金浦의흠치무리 納入告知書를配付
일반인사의여론이분분

근일각처에서 박멸 혹은성토로 논쪽을 당하기로유명한 소위 흠치무리 상투장이들이 수월전부터김포읍내(金浦邑內)공회당(公會堂)에다가정교부(正敎部)라는간판을 부치고 상투장이들이들낙날낙하면서매일『흠치 흠치사바하』만부르고 개안(開眼)하느니 도통을하느니 수군거림으로 당디인사들사이에 여론이 분분하야 혹은제멋대로 두자거니혹은간판을 쩨여다 불을놋차거니한편에서는 소위 공회당이라는 **간판우에** 다추악망측한 정교부라는 간판을 부치게되는 것은 김포권데에 수치이라하야 공회당이라는 간판을 쩨여바리고 흠치당 이라는 간판을걸자는등 당디청년들은 흠치무리박멸책을방금연구중이라는데아직도몽속에잇는 그네들은 차차해가길어가낫가 시장한 생각이나든지 수월전에는 소위진정원이라는데서 무슨서류가 나왓다고 정교부임원회를모고밀경은 **어리석은** 상투장이들의 주머니를털기로결의가된모양이라는데 상탈로배탑이 배보다크다고 교도는등월배만 수효도모르고소위부장이하십인원어삼십명이라는데 이제그내용을 들은바에의하면 소위의금(義金)이라고춘추로일원식어리석은교도들에게 쌔서가는 것이잇는데그것도권에는남모르게다니며바더먹든것을 **금년부터** 는제왈총독부인가를마튼교라고돈을강제로좀 빼서몸작뎡인지 요사이 김포군에는이상한 납입고지서(納入告知書)가 도라다님으로 혹어리석고무식한상투장이들은호세고지서가나왓다고한다는데납입긔한은음력삼월십일이라고고지서를 바든사람들은 긔한이 박두하야 매우근심중이라더라(김포)

배가곱하서 乳兒遺棄
아들업는집에서 양육을하는중이다

지난 이십사일 오전여섯시가량은되여서충남연긔군조치원(燕岐郡鳥致院)영뎡(榮町)최석규(崔錫圭)씨의집대문안에어느녀자가나흔지 십개월가량이나 되는 어린아이를 바리고 갓슴으로최씨는 곳조치원 면사무소로 따리고 가서마트라 하엿스나면에서 금히마틀수 업스니당분간 마터양육하여 달라함으로 최씨는다시조치원 **경찰서로** 들어가서그어린아이를 엇지하면 조흐냐고무르매 경찰서에서도 당분간은엇지 하엿스면 조흘는지 대답하기어려웁다함으로 최씨는 할일업시 그어린아이를 다리고와서 양육하는 중이라는데 그아이를 바린녀자는나이 삼십가량이나 되여보이는 녀자로 그아이바리든날아츰여섯시도 못되여 전긔 최씨 **집안으로** 들어올써에그 어린아이를업고와섯는데 그날은 음력 초하로날인고로 그최씨의 집에서『오늘은초하로날인데 남의집에이와가티 녀자가 일직이 들어오는것은 재래습관상에 써리는줄도 알더인데 무리하게들어왓느냐고』하며 나가라하매그 녀자는 배가곱하다니는 사람이 이것저것 **생각할수** 잇습니까하고 도로나갈써에 등에업엇든 어린아이는 울고붓채이엇는데 문밧그로 나간후에좀시 문간안에서 어린아이 우는소리가 계속하여 나더니나중에는 우는소리가 점점적어지며 늑기는것이하도 이상하야전긔최씨가 문밧그로 나아가본즉 전긔어린아이를 문간엽우에다가 **다쩌러진** 저고리만입히여노흔 싸닭에 어린아이가추음을이기지 못하야 거의절명될디경임으로 전긔와가티 거두어양육중에라는데 그녀자가 그어린아이를 바리고나아갈째에 최씨의집 이웃사람이 그것을보고지나감을보고 그녀자는 지나가는사람을 속이기위하야 대변을하고올터이니와 잠간 누어잇스라그하고 도망하엿다는데 그어린아이는남자이라 **주수하게** 된긔남자이라 최씨는 본래년로하여 오도록 아달이업슴으로 이 어린아이를 아달삼아 양육하겟다고한다더라(조치원)

農民을속히든 흠치敎徒逮捕
황주서에서취됴중

각처에서 가진협잡을하든 흠치교무리가 어리석은 농민을속히어 금전을 편취하야사복을채운다함은 세상이다아는바어니와 황해도황주(黃海道黃州)에서도 흠치무리가 놀어간다하야 청년회사람이 정교부를차자가서 맹렬한 공격을주엇슴언지 근래에는 존재여부가 망연하든중황주군송림면대동리(黃州郡松林面大同里)림정원(林政元)(三九)이라는자는 일정한 직업이업시보천교선포사라는 명목을띄고 에매한농민을속히여 경비에 보충이라핑계하고 수금하다가 경찰의손에 데포되야 지금황주경찰서에구류중이라는데그자는동면회동리 리관식의 딸인에게돈일원식바든일과 그외여러사람에게바든일이 만타하야 엄중히됴사중이라더라(황주)

無道한妓兒
부모를축출코자 자살코자하든자

평남평원군 영유읍내 오외선(平南平原郡永柔邑內吳外善)이란자는 자긔부모를 내여쫏고자여러날애를 쓰다가 지난음이월이십구일밤에 자살하라다가 발견되야는데 그원인을 들은즉그자는 작년까지황해도겸이포(兼二浦)에서로동하야먹다가요행히 누이동생이 기생됨을 긔화로알고 음작년구월에 누이를다리고 영유로이사하야기생영업을시작하엿는데최근에는생활이조곰넉넉하야진모양인데겸이포에잇든 그의부모는돈다못하야밥낫처흠만하다가지난이십구일밤일한시시경에『아가시야』나무가지에목매로목을매며느려젓다가그처에게구호를 바더가지고 제집에도라가서 다시죽으라는 생각으로 처에게술을사오라고보내고자긔는영더리 잡화상 김커준상점에 잇는 양잿물한병어리를 가지고 가서술에 섞거먹으라다가 또다시그처에게 발견되야 목뎍을달지못하고 그뒤로는 량심이잇는지붓그러워서 영유에는 잇슬수가 업다고몰일간떠나다고한다더라(평원)

武器密輸出發覺
신내천현경찰부의활동

신내천현경찰부(神奈川縣警察部)에서는 길정경무부장(吉井警務部長)이하수명은 상주평총뎡(相州平塚町)에 이른러 원경일(原耕一)에집에 가택수색을 행하야 유력한증거서류를 압수하엿는데 사실인즉 로농로서아(勞農露西亞)에 무긔를 밀수출한것이 발각된것이라더라(동경뎐보)

大學卒業證書
위조하야멸매
한장에일천오백원

경도데국대학 문학부(京都帝大文學部) 졸업증서(卒業證書)삼십여장을 위조하고황목(荒木)총장의 관인(官印)까지 위조날인하야 한장에일천오백원식 밧고팔에먹은자가잇다는풍설을들은 경도천단(京都川端) 경찰서에서는 비밀리에 됴사를개시하엿는데대학측에서는이러한범죄는 대학관계자에게는 업다말하나경찰서에서는혐의자로동대학문학부전과(專科)학생가등언조(加藤彦造)위명(僞名)을 주목한다고전한다(경도뎐보)

四萬圓을 가지고도주한
녀마적두명데포

이천여명의 부하를가진마적(馬賊)의두목 타호(陀虎)(二五)와 부두목(副頭目)야랑(野狼)등은 길림성(吉林省)각디를횡행하면서 부하들과하의 약사만여원가량모흔것을 비밀히가지고 도망한결과 부대는해데되고무순(撫順)에 잠입하엿는데리두명도경관에게 데포되엇다한다(장춘뎐보)

婦女의寢房에 뛰여든남자
본뎡서에잡히여

일뎡한주소가업는 자칭 김순서(金順西)는이십육일새벽세시삼십분경에 시내 황금뎡(黃金町)이뎡목사번디리희석(李熙奭)의 커량성녀(梁姓女)가혼자자는그 안방에침입하야 량성녀에게 피상한행동을함으로 량성녀는 극력반항한바 그자는 그목뎍을달치못함을짐작하고 돌연히 정신병자커럼 의복을벗가벗고 날뛰엇다는데 이급보를들은 소관 본뎡경찰서원은 급히 출장하야 그자를데포하야경찰서로압송한즉 그자는언어와행보를 못하는것커럼 요지부동을하는고로 출장하엿든경관은엇절수업시인력거에태워서 본서로 압송하엿다더라

七歲兒의藥食行商
할머니의담배갑을위하야 이것도세태를말하는현상

떠듯한봄도아즉은찬바람이쌀쌀스럽게사람의 품속을 음습한다 아마 겨울지난지가 얼마되지못하고 또는봄이라도 밤이김헛던모양이다 밤은김헛다 사나희도 계집아이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모다잠들엇나보다 압집에도 뒤집에도 안방건너방 모다꿈에싸인것갓다 식그럽고 떠들던 **온세계는** 잠파뭇으로변한적막의밤!약밥사시오─길에부르는소리 아모리하여도 커랑하다는것박게업다 떠욱이어린이목소리로약밥사시오─아아 엇던 어린이가 이가리고요한밤의공긔를 쐐르리는가? 노랏코 발간빗으로 아둥아둥하게 맨든 새모자 빨간두루마기에 파란뒤를튀인당년일곱살(혹은여덟살)먹은황정식(黃正植)이라는어린약밥장사!아!세상은참으로고금창상의 늣김이업지안타 일곱살먹은 어린이가 사랑하는부모슬하에서 응석이나하고 잇슬그이하날떠디나 쇠덕어릴그이가 **약밥장사** 로론버리를한다고 이것이과연사회의 발전? 문명의 선물이더냐? 넓리세계로는탄연할수업스나 겨어도조선에서는 귀엽할것갓다 아니온조선은모르겟스나 다만 인천만은오직나인것이 분명한사실일것이다 인천에떠도는 어린이약밥장사여!혹노니그대는무삼일로 약밥장사를 아니하지못하게되엿는가?

황정식은 자긔의부모가 업는사람일다 아니 업는것은아니지마는 업는것이나 일반이다 그의아바지는 죽엇다고도 하나 혹은 애첩을다리고 중국으로간지가 오래다고도한다 그의어머니는 남의집빨래나하여주고 근근히호구하여간다고한다 이어린이는 자긔어머니의 이모되는 인천부률목리(仁川府栗木里)이오십이번디의이호에거주하는손양래씨의부인에게 의탁하고 잇는데 누구나말하지안어도 알만한 이어린이의가이업슨 사정은 그의할머니되는 로인의 담배갑이나마 보태여주고자 지금으로부터 한달전에 약식장사동모를 다친업이 약식을팔게되엿다고 한다 첫날의리익이이십이전 다음으로칠팔전평균은 **언제던지** 되는모양인것갓다 그리고낫에는 송림어느서당에서 글을배운다고 하는것은 그어린이의자백과 어린이를 길느는 로인의언명이다 아ㅣ담배갑벌기위한 어린이 약밥장사라고하면 그약밥장사를 식히인배후의인물을 비난치 안을수업스나 그의내용은 황정식자신이발서부터 금전의리해를가지고 일종자미스러운 취미를 가진것이 분명하다 그것은정식이가 긔자에게대하야『약밥줌사시지오 이것을다사서요 아이그참!』이것만보아도 증명할수가 잇다고한다 어린이의리치의 발달이가터되엿다함은 그전날 어두운시대에비하야 얼마나한 변동이잇섯승을 알수가잇스나ㅣ 이것이 과연 사회의발전? 문명의선물이더냐? 긔자는 이어린이약밥장사의전도가 과연 뗫뗫한사람의갈을빪기를빌뿐이다(인천)

荷車電柱에衝突
차부중국인중상

인천부우각리(仁川府牛角里)시옥산(施玉山)의집에잇는 중국인류진생(劉眞生)(二四)은이십오일오후 세시경에 축현역(杻峴驛)에서짐수레에락화생(落花生)과 기타물건을 실코대문(大門)언덕을 나려올써에 길가에어린아이가잇슴으로이것을피하련든 경사진곳이라 그만멋그러져서 마츰내인천서(仁川署)압뎐주에 부되처 수레는 파괴되고사람과 뎐주가 충돌되야 웬부가부상되엿슴으로즉시 인천병원(仁川病院)에입원치료중인데의사의진단에의하면 매우 중상이라더라(인천)

梅毒고친다고 사람을죽게한자

성진군 학중면해평동(城津郡鶴中面海坪洞)의생 리현래(李鉉泰)와 동업하는 자칭의사 로명찬(盧明燦)이라는자는지난십구일에동리청년 김의연(金羲淵)의 병을진찰한결과 매독(梅毒)이라고판명하고 륙○륙호(六○六號)의 주사침을 노흣는바병자가집에마진후오분이못되야돌연히 즉사하엿는데 **동리사람** 들이그자에게 죽은원인을물은즉 자긔의잘못은 아니요 창자가 단허저 죽엇다고 함으로모다심히 괴이하여이든중 당디경찰서에서 이소문을 듯고 서원이곳출장하야 로명찬을 검거하고 그시데는경진자혜의원(慈惠醫院)으로보내여 해부하야 본결과 주사긔(注射器)에 공긔가들어가 혈관(血管)이 터어져죽은것으로판명되엿다는데 **자칭의사** 로명찬은본래 허가도업시재작년부터 림명(臨溟)이라는곳에와서 약종상(藥種商)을 하며동서의학에매우통한듯 이진료와처방을 하엿고 하다가 동리엇던사람의 며누리가태중임을구하고친을노하하산까지하게되엿든일이잇섯슴으로일반은그의 정거될것을 대단히통쾌히엿인다더라(성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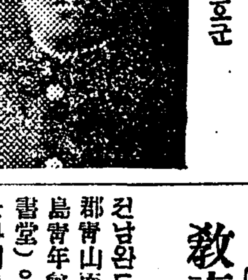
卒業生三十名
원산상업학교

원산상업학교(元山商業學校)에서는 이십삼일오후한시에 졸업식을거행 하엿는데 졸업생삼십명중우등생은 박래련, 서병원의 두명이라더라(원산)

◇사진은─서병원군

安州農校卒業
졸업생사십이명

안주공립농업학교(安州公立農業學校)에서는 데삼회졸업식을지난이십사일오전열시부터동교내에서 거행하얏는데 졸업생총수는사십이명이요우등생은김연호(金然灝)안귀봉량인뿐삼인이라더라(안주)



◇사진은김연호군

客의돈을橫領逃走
비단사러갓든상인들은 랑패하고경찰서에호소

안동현사번통일뎡목번디(安東縣四番通一丁目番地)에잇는 량명경(梁明鏡)이란자는지난십륙일 오후칠시에 자긔집에온 손님의 맛긴돈일천사백원을가지고도망하엿슴으로 피해자는 지금안동현경찰서에 수색원(搜索願)과고소장(告訴狀)을 데출하엿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을듯건데 **피해자는** 개성군북본뎡(開城郡北本町)에잇는 안종화(安鍾和)와동군대화뎡(同郡大和町)사는박용진(朴容鎭)인바 이두사람은 안동현에와서 중국비단을사가고자 이미 량명경이란자와 약속이잇든중 지난십오일에 금화일천사백원을 가지고 량가를차자서 가지고 온돈은 물건을사기위하야 십륙일에 전부 지화로밧구어서 량가에게 맛겻든바 그자는그날밤 그돈을자긔집동속에너코 자긔는 **엇던촌에** 좀갓다 오겟다하면서 떠나서는 몃날을들어오지아니함으로 그집에온 손들은 의심이나서 지난십팔일에 주인의안해다려 우리가맛긴돈이 잇느냐고물은즉 주인의안해는 알지못하나 어제커녁에 롱을열고본즉 업더라함으로 그제야비로소 량가가도망한줄알고 사방으로 수색한결과 합이빈으로가서잇스면서 **자긔집에** 긔별하고돈 ...(안동현)

坑夫慘死
굴속에서나오다가 구두마에치어죽어

지나간이십일오후세시에함남신흥군가평면장풍리탄광(咸南新興郡加平面長豐里炭鑛)에서 항부(坑夫)한사람이참혹히죽엇다는데 이제그사실을 알어보건데 그죽은사람은 원래경상북도례천군룡궁면장뎐리(慶尙北道醴川郡龍宮面長田里)에 살든권명오(權明吾)(三五)라하며 그가 얼마전까지는 함남북청군양화(咸南北靑郡陽化)에서 텰도공사에 종사하다가열흘전(삼월십일일)에전긔탄광에가서 그곳 김치홍(金致弘)의집에서 숙식을 하며 항부노릇을하든바 거리가 삼십여뎡이되는 경사진굴속에서 석탄을 구두마에실고 굴밧그로나가다가 구두마를멀어 올리는쇠줄이 별안간에끈허저서 구두마가뒤로떠러지는바람에함께치여 그가티 참혹히죽은것이라 하며 그의시데는 탄광회사의 알선으로 그곳공동묘디에 매장하엿다더라(함흥)

少婦의離婚訴
남편은못살겟다고

지난이십오일황해도황주경찰서(黃海道黃州警察署)안에는이십전후의 젊은녀자가 드러와서눈물을흘리어가며 애원하는말이 자긔남편되는사람과는죽어도가티살수가업스나 경관에서는 이판단하야달라고하며 하소연을하엿다는데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듯건데 그녀자는 황해도봉산군덕천면경천리(黃海道鳳山郡德泉面敬天里) 한창호(韓昌鎬)(二三)라는녀자로서 본남편과는 엇지헤여지고 다시지난음력 정월십칠일에 엇던사람의 소개로 황주군구성면청운리 김원필(黃州郡九聖面淸雲里 金元弼)(三○)과 동거하든바 본시그리로 갈째에는 전혀소개자의 말만듯고갓도니 가고본즉 본처가잇슬뿐아니라 만가지의한가지도 마음에 합의한것이업고 도로혀구박이날로심하야 도더히 가티살수가업다는데 김원필에게로 갈째에 돈백원을바더 사용한것이 잇는데 그돈은도로주겟다고 애걸하나김원필은돈도실코긔어히 가티살겟다고함으로그와가티정판에게애걸한것이라더라(황주)

饑饉에싸진 鳳山郡의貧民
동서남북으로류리한다

황해도봉산군(黃海道鳳山郡)은 작년에 참혹한한재를 당하야일반농민들이 날로곤궁함으로 할수업시 못듯한 고향을떠나혹다른디방으로 혹은 멀이남북만주로표박하는 사람이별서 이백여호에 달하얏고 또다만한써의 밥이라도 어더먹고자 조상으로부터 유전하야온 멋말지기의밧이라도 외국사람에게 파는사람이적지아니하야 조선인의 디세가천여원이나 감소하얏다는데 그외에 아직근근히 생활을유지하는사람들도 한이업시 늡허가는부과금(賦課金)으로 인하야 크게걱정중이라더라(사리원)

敎育沮害者
일반이분개중

전남완도군청산면모도리(莞島郡靑山面茅島里)모도청년회(茅島靑年會)에서는개량서당(改良書堂)을창설하고 동리 공유재산과의 연금으로근근히유지하야오든중 그동리구장김달영(金達榮)이가세금징수에대하야 불법행위를만히함으로 동 청년회에서한번징계하얏던바김달영은이것을 혐렴하야 자긔의친척들과 또일반 학부형에게 신교육의불필요를 선전하며 통학하는아동까지 위협일뿐만아니라 공유재산중에서 서당경비로 지출하는것도 방해함으로 서당의유지가 자못곤난하야 일반의 비난이자자하다더라(해남)

機關車에發火
경인선에서
다행히큰일은업섯다

지난이십오일 오후다섯시 사십분에 경성역(京城驛)을 떠나인천(仁川)으로가는등급렬차가동 여섯시이십분경에주안(朱安)부근을 통과할때에 긔관차연통에서 불똥이 뛰어나와 객차집웅에 붙이붓자 차차퍼커서 객차안에 잇는 승객들이 이것을발견하엿는데 일반승객은 만일을념려하야 보짐들을고차에서뛰어나리고자한이도잇고 긔관수에게 진행정지를 청한이도잇섯스나 큰일에는 이르지안코 곳진화하엿는데 경인선에서 이런일이잇기는 이번이 처음이엿슴으로 일반승객과 차장은 크게놀내엿섯다더라(인천)

格鬪後逮捕된
평양의도적한명

평양부남산뎡(平壤府南山町)팔십구번디 금촌(今村)이란 사람의집에 지난이십일밤에 엇던자가 들어와서 시계와기타물품을 도적하여간일이 잇섯슴으로 평양경찰서에서는 범인을수색하든중 이십이일부내 괴구뎡(橫口町)을 통행하는 수상한자를 취됴하라한즉 그자는 도망하라하는것을순사가 따라가 격투를한후데포하엿다는데 이자는 전과수범이잇는최성옥(崔聖玉)이란자로 동서에서는 목하엄중히 취됴중이라더라(평양)

宜寧의交通線路
승객의대불평

경남의령자동차영업선로는삼가진주간(三嘉晉州間) 신반 창녕선접속(新反昌寧線接續)군북역남선텰도련락(郡北驛南鮮鐵道連絡)까지삼선로인데승객이만흔인지 차수가적음인지 군북역에서는시간마다승객의경쟁이는히사이가 업시며다른 선로에서도 교통의불평을 부르지짐이심하다는데 게다가불친절이라 하야일반은 교통긔관을 좌우하는도군당국(道郡當局)에서본데만데한다고비난이자자하다더라(의령)

佛國列車脫線
사십여명사망

불국(佛國)『보아체』시부근을통과하는 급행렬차가 탈선전복하야상원의원(上院議員)『페데비츠』씨외사명의 사상자와약사십명의중경상자를내엿다더라(『쏠도』이십오일발뎐)

詐欺事件의發覺
富豪子로變裝한
수범은당장에서데포되고 련루자는아즉못잡엇다고

청주군강외면 호계리심상억(淸州郡江外面虎溪里沈相億)은 현금일천이백원의 사긔취재 공모자로 방금청주경찰서에서 엄중한 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이제 그내용의자세한말을들으면사건이 매우복잡한중에도세상에드믄 사긔방법이라는데 그는청주군강외면 부호 리정호(李廷鎬)씨가세상을 떠난 것을 긔화로 자긔와친분이잇든 청주읍내대흑뎡 윤홍식(大黑町尹弘植)씨에게 말하되 전긔한 **리정호씨** 아들리병수가 자긔아버지의 큰일을 치르는현금이천원가량이 매우몰리는 모양인즉 그것을 좀대용해주면당신이그의친척에게 바들것잇는 돈까지 무려주겟다 하니 좀대용해줄 터이냐고 수차 교섭하야오다가 마츰지난 십팔일에 윤씨에게 돈이드러온 것을짐작한심상억은 리정호씨의아들리명수라는 상제를다리고 와서인사를식히고권과 **가든말로** 권유함으로윤씨는 리명수친족에게 바들돈을 물어준다는 바람에비록 그가초면이나 부호인줄도알고 또한소개자심상억과도 친근함으로 의심업시 전긔금액을 내주엇는데 차용증서(借用證書)는방금이차편(車便)(오전구시오분차)에집으로부치고와서써줄터이니위선이가렴수증을밧고심씨와가티잠간 기다리라고하고 나가더니얼시간이지나도오지아니함으로는 못의심을 품게되던데다가 김씨는 앗가해준가렴수증을빼아서 **써지라고** 까지함으로더욱의혹을 품고서 모형사에게전후사실을말한바되여 심상억을 취됴한결과 사실에 착오가생김으로 경찰서로다리고 가서계속취됴한결과 현금을가지고 도망한상제리명수는 주소미상한 박재옥(朴在玉)이란자로강외면상정리박종규(江外面上亭里朴宗圭)와삼인이공모하야사긔취재를하라고그가티련극을씨기고상제로가장까지하엿다는데 일히자백하엿다는데련루자는아직데포치못하엿다더라(청주)

艦隊歡迎準備
인천에서

일본뎨일함대(第一艦隊)소속군함삼십여척이 래사월 십륙일에 인천에 입항한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그후동항대장교환영회(歡迎會)에관하야협의한결과환영회는 입항당일 오후여섯시에 공회당(公會堂)에서 열기로되엿는데회비는매인압헤십오원식으로하엿고시민유안해군악대연주(海軍樂隊演奏)역시입항당일오후 세시에사정소학교(寺町小學校)운동장에서 하기로되엿다하며야구(野球)와정구(庭球)시합일자는 아직미정이라더라(인천)

城西面民또陳情
무식하고미련한 면장을갈어주오

달성군성서면(達城郡城西面)에서는 면민수백명의련서로 면장을갈어달나고 도텽과군텽에 진정서를 데출하엿던바 아직까지 아모처리가 업슴으로 면민은다시머회를 열고결의한결과 두번재진정서를 지난이십오일에 당국에 데출하엿다는데 그내용은 면장은무식하여사무처리할줄을 모르고 부자에게아첨하야 소작인에게겟박고 죄업는사람을 어쩡한혐의로 무고하고이외에멋멋가지 죄상을갓초아 긔록한장문의진정서라더라(대구)

『메』를캐다가 동무를중상

황주군제안면 적벽리(黃州郡齊安面赤壁里)채석국의 장자수호(蔡錫浩)(九)와 동리김만호의 아들동재(一○)와 그의여러 동무들이 지난이십이일의 황주동문밧벌에서『메』를 캐러가서집들 재는『쇠스랑』으로 메를캐고수호는『메』를줍고 하다가실수하야쇠스랑으로 수호의 머리를찍어쇠스랑의 두가지가 무참히머리에 약한치가량이나 드러가인사불성이 되엿슴으로 여러동무들이 간호하야 가지고 집으로와즉시 황주제중 의원리동희씨에게 치료를밧는중인데 생명에는 별반관계가업스리라더라(황주)

宜寧에賭博流行
경찰은무엇을하는가

경남의령군(宜寧郡)읍내에는일반이부읍(富邑)이라인명하는바 비교뎍재산이풍부한곳이나유산자나 무산자를물론하고 여러가지놀음이 성행하야 몃십원몃백원식 승부를내는일이 한두곳이 아니라는데 소할경찰서에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모취톄도업슴으로일반의비난이만타더라(의령)

鴨綠江解氷
작년보다십일이느저

압록강(鴨綠江)의 어름은 지난 십오일경부터 위험하게되야 일반통행이단절되엿더니근일에는 일긔도더욱온화하여짐으로 지 까지 만히왓슴으로 지이나리게된바압록강으로 선배가 통행할듯하다하며 작년해빙긔에비하면 십여일가량이 느젓다더라(안동현)

自働車에서落傷
생명에는관계업다

경남하동 자동차 조합운뎐수 조수(慶南河東自働車組合運轉手助手)로잇는 허뎡태(許廷泰)는 지난이십삼일오후두시경에자동차로 원뎐(院田)을 향행하든도중에 하동읍(河東邑)부근우치(牛峙)에서 운뎐을 잘못한과실로인하야 자동차가 뎐복락상되여 즉시하동 복강의원(福岡醫院)에 입원 치료중이라는데 생명에는 아무관계는업다더라(하동)

稱頌밧는富豪
구제사업을한다고

령광군 령광면도동리(靈光郡靈光面道東里) 허진경(許珍卿)씨는본래극빈자로 삼십여세에비로소 실업을시작하야가지고 근검저축한결과 지금에는 수천석의부호가 되얏는데 작년한재로인하야 먹을것이업서서 거위 아사의 디경에 이른 자긔소작인들을위하야현금삼백원과 벼삼십석을내여 분급하고또기타 빈민들에게 벼일백석을분급하얏슴으로 일반이 씨의자선심을칭송한다더라(령광)

巧妙한窃盜
개는약을먹여죽이고 십여회를훔쳐갓다고

평남평원군 석암면원화리(平南平原郡石岩面元和里)사는 림춘화(林春和)(三二)는작년음십일월십일부터 금년이월십일일까지 한동리림형수(林灦洙)창고에싸혀잇는벼(稻)십이석과콩일석을십삼회를 계속하야 도적하고지난이십일밤에 독약을석거 가지고 가서 개를먹이여 죽이고마음것 도적하얏는데 이급보를 드른평원서김◆무는 부하형사를 파견하야 수사한결과 림춘화인것을 알고데포인치하야 엄중 취됴한바리일림히자백하엿다더라(평원)

一圓餘小作料로 四寸과訴訟
김천에서생긴일

경북김천군 남면월명동(慶北金泉郡南面月明洞) 위성량(魏聖良)이란사람은 한동리사는그사촌위술량(魏述良)를걸어김천지텽(金泉支廳)에소송을뎨긔하엿는데 작년도소작료교맥(蕎麥)가격일원오십전 청구사건이라더라(김천)

濟州에禁酒會
벌금은교육비에

제주도 좌면하귀리(濟州島左面下貴里)에서는모든비용을절약하기목뎍으로 동리유지의 발긔로 금주회(禁酒會)를 지난음력 정월부터 조직하얏는데 회원은전동민으로 하고금주회 규약을어기는 자는벌금일원식을 바더서 교육비에 쓰기로하얏는데 지금까지 잘실행되는중이라더라(제주)

珍奇한雙頭鱶
동래군에서잡엇다

본월초순경에 동래군남면(東萊郡南面)해운대(海雲臺) 바다에서 머리가두개나되는 고기한마리를잡엇는데 자세히 됴사한결과 기리가일척가량되는 상어로 판명되엇다는데 고기로서 머리둘가진것은 참으로 이상하다하며 동래온천에잇는김백수(金百洙)라는사람이 일백이십원에사서 지금『알콜』에너허 두엇다더라(동래)

校長室專門으로
절도질한자데포

주소부뎡한 리운규(李運奎)(二八)은금년일월이래 시내 종로소학교(鍾路小學校)를 비롯하야 경성중학(京城中學)주교공립보통학교 경성사범학교 기타륙칠개소의학교 교장실(校長室)만을 전문으로 외투(外套) 비단과구두칠말커려합삼백원어치의물품을절취한것이 발각되야 지난이십일에종로서원에게 데포 되얏는데아즉도 여죄가 만흔모양이라더라

南市火災
룡천군 남시

룡천군 남시(龍川南市)에서는지난이십오일오후한시에 리병근(李秉根)의 집에서불이 일어나서이웃리모의집에까지불이일어나며 일시소동을 일오켯스나 소방조가비상히 활동한결과로이시경에진화되엿는데 원인은자세히알수업스나손해는 약만원가량이라더라(룡천)

南陽에火災
수원군음

덕면북양리(水原郡陰德面北陽里)칠십사번디 방희모(房熙模)의집에서는 지난이십사일 오후여덟시경에 불이나서소방조(消防組)가진력하엿스나 우물과내에 물이말라서 진화하지못하고 전소되얏는데 호주 방희모는 면부(面部)가화상(火傷)되얏스며 홀아비로 극빈한처디에 어린아들딸 두아이를다리고 거처할곳이업서 호곡방황하는경상은 참아볼수업다더라(남양)

議員家宅侵入한 장사패는검사국

이십오일 귀족원의원 령목희삼랑(鈴木喜三郞)씨뎌에침입하엿든 광뢰(廣瀨)상뎐(上田) 아부(阿部)외칠명의폭한은이십륙일 아츰에 검사국으로 송치되여장뎐(長田)검사의게취됴를밧는다더라(동경뎐보)

◇集會◇

◇配達組合講演會 경룡신문배달조합(京龍新聞配達組合)은종로(鍾路)이뎡목팔십사번디로그사무소를옴기고 이십칠일 오후여덟시부터부내경운동텬도교긔념관에서 아래와가튼 연사와연데로강연회를열리라더라

疑問의社會相 鄭鐝鳴
產業組合運動에對하야 辛日鎔
나의派爭觀 韓偉鍵
題未定 金炯福

◇正誤 지난이십오일석간제삼면에긔근과동정(饑饉과同情)이란긔사중 조지환(趙之煥)의 오긔라함은 장지환(張之煥)의 오긔이오동정금품은『삼인이가티 조(粟)석섬이라더라(인천)

휘파람

▲일비곡 동물원(日比谷動物園)이라는 별명을듯는일본의회(議會)에서 요사이는 보선안(普選案)이엇더니 엇더니하야 왜 싸호는을하는 모양이다▲구경하는우리는남의일이라때고두들기고볼질은고야단들을칠수록그흥미는정비례(正比例)할것이나일본정당국의머리골치압흘생각을하니남의일이라도 딱하다.▲도데국(島帝國)의 수부(首府)인동경에폭력단데(暴力團體)가백주로상으로횡행하니 이현상은 과연무엇을암시(暗示)하는것일가

連理枝 (련리지)
소요산인 (50)
리상의불님

『폴』군 조흔봄을 한다는것은적더하는이의 행복이다 그보다도 확실한 그보다도큰행복은 이세상에업는것이다 위안과 휴식과 쾌락과 여유와명예를 엇고자하는것은 이세상에언제 까지던지 머물너잇술수업는약한사람의할일이 아니다 여보게자네외누의 행복을향하야 겨우한거름을 내드되인적로 우리여러사람은 천장만장되는 언덕우에서 뚝떨어지고말지안엇는가 자네가 그째에반대를한것은 당연한 일이엇네그러나그째를 당하여서는『빌지니』씨의 떠나가는것이그사람을위하여서나 자네를위하여서 행복이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한사람은 하나도업슬것일세 돈만흔일가의초대와 사리를아는 지사의충고와 온식민디 사람들의 축하와 존경하는목사의 훈계가 『빌지니』씨의 어붉행한 운명을 결뎡한것이다 이와가티 우리들은우리를지도하는사람의총명한 지혜너숙어서 파멸을당하고 절진한것일세 그사람은 고허위만흔세상의 희망과 불소리를밋지아니한편이화실하나 엇슬것일세 그런데 이고원에서 일하고잇는만흔사람들이 에나가서 성공을하거나 구라파에가서 재산을만들어노흔 사람오로서자긔사랑하는사람과명예와 재산과안해와자식과 희망과 일어바린사람도잇는것일세그리고 그사람들은 그손실에대하야후회하는맘이간절하게되는것일세그러나 자네는 잘생각하여볼지라도 후회할일은 조금도 업슬것일세자네는어려서부터현인과가튼 지혜를가지고 잇서서 결단코 자연의풍속을 떠나지아니하엿다 그런즉 자네생각만은 조금도 흘넘이 업는것일세시긔심과 리긔심이 조금도업는정결한맘을가지고잇는것일세자네는『빌지니』씨에게대하야신청한권리를가지고잇섯스나그권리도외부의 행복을 배척할수는업슬것일세 자네는그사람을 잃어바렷비 자긔가잘못하여서 그리한것이 아니며 욕심으로인하야그리된것도 아니며 착오된자혜로 그리한것도아니요 하누님니 달은사람의 정도인간의 일생은죽엄으로 뭇을마말는 조그만탑파가튼것일세 생겨난뒤로부터 죽기로 약속된것일세 그사람이 자긔모친과자네모친과 자네보다도 먼저죽은것은 곳자긔생전에 친근한사람의죽엄을 보지안케된것은 그의 행복이라할것일세

『폴』군 죽엄、란것은 엇더한사람에게던지 조흔것일세 죽엄이란것은『사람』이라고 일컷는 불안한날이 지나감으로 오는 밤일세 죽엄이란 잠속에서는불행한인간의삼사를 쉴새업시 희첫는병과 고통과념녀와 공포가영원히살어커밧이는것일세 데일행복스러웟다한사람을 자세히 주의하여보소 그러면 그네들의엇더이 행복이 비상한희생을주고 밧구어온것임을알것일세 세상의존경은 집안사람의 원망으로 재산은건강을 해침으로인하야 남에게사랑을밧는희귀한 행복은 간단업는희생을 주고밧구게되는것일세 더군다나 그날 거짓의친구와 배은망덕하는 일은사람의 행복을위하야 바치고 잇던생활의도에 당하여서는 다반가밧게 자긔주위에 남어잇지아니한것을 발견하게되는것일세 그러나『빌지니』씨는 목숨을 뇌칠째까지 행복스러웟네 우리와가티잇슬째에는자연이주는행복을 질겨하엿고 우리를떠낫슬째에는 도덕이주는 행복을돌인것일세우리는그사람의죽는모양을보앗거니와 그무서운 순간에도 그사람은행복스러웟네 자긔를위하야 비상히 슯허하는온식민디 사람들을보앗고 자긔를 구하고자하야 굴하지안코 분투하는 자네모양을보앗고 자긔가유리어려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히 생각되는가를 보지안엇나 쏘 자긔원생에 조금도오손됨이 업시 미래를보장하야 갓스며 하늘이 덕잇는사람에게주는보수라고도 할만한용긔위험보다도 일층굽흐용긔를 늣기지안엇는가 그는 정말유쾌한열희를늣기지안엇는가 그는 일세